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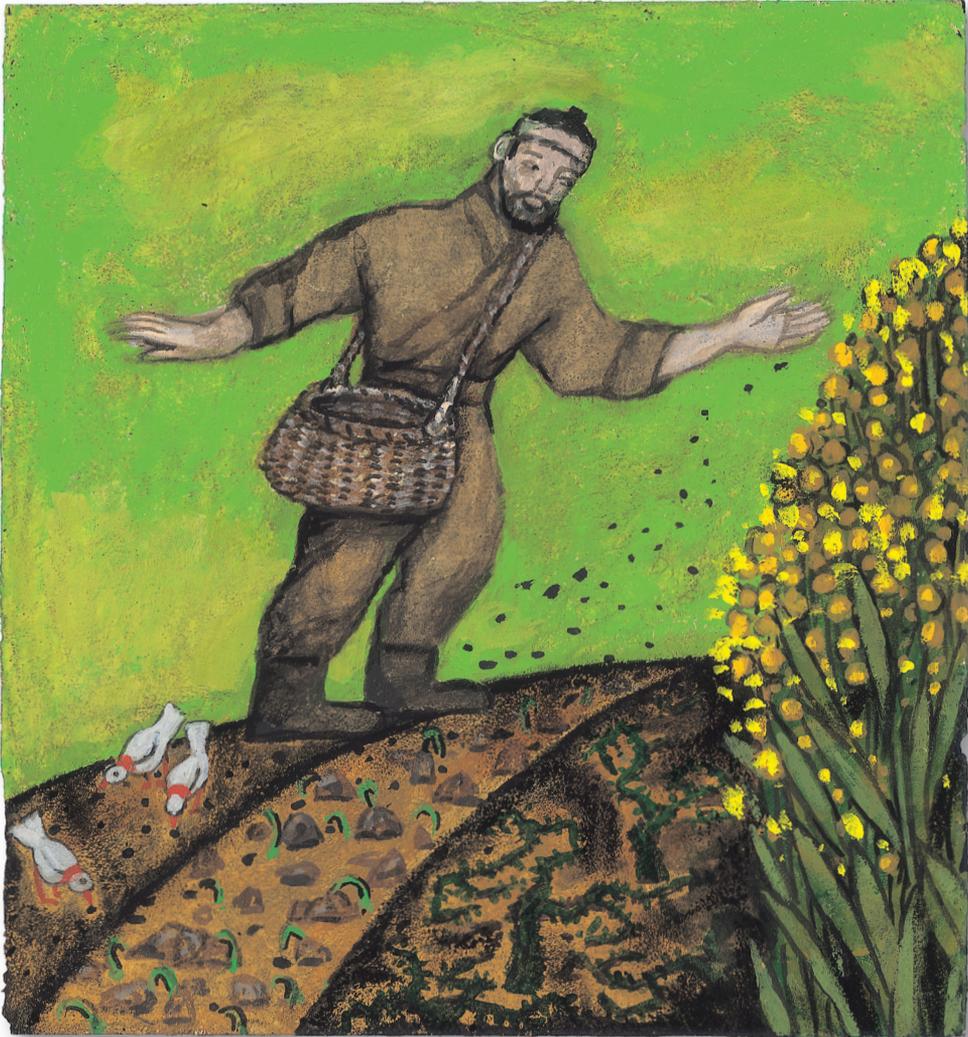
# 대구 주보

연중 제15주일(농민 주일) 2017. 7. 16.(가해) 제2060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o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길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백 배, 예순 배, 서른 배를 낸다.”(마태 13,3-8 참조)

우리 마음의 땅은 어떠한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_ 정미연 소화테레사 작

**제1독서** 이사 55,10-11

**제2독서** 로마 8,18-23

**복음** 마태 13,1-23.

**화답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창피한 일들



김성근 요셉 신부 | 모화본당 주임

살다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은 계란에 소시지 반찬을 사오는데 나는 늘 풀죽은 김치를 도시락 반찬으로 싸가야 했을 때 웬지 점심시간에 도시락 내놓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7남매 키운다고 정신없으신 어머니께서 그래도 새벽처럼 일어나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감사하게 먹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학생 시절, 제가 소위 말하는 ‘개발’이라 축구를 잘 못했습니다. 그게 창피스러워 일부러 아프다고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개발’ 축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지, 나도 웃으면서 공을 찰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교 소임을 맡아 학생들에게 첫 강의를 할 때, 하도 긴장해서 말도 더듬고 학생들 질문에 거의 울상이 되어 수업을 마치고 나서, 너무도 부끄러워 그날 저녁 술을 진창마신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 경험이 쌓이니 학생들을 야단치며 공부하라고 독려하기도 했지만, 처음 강의를 할 때 정말 하루하루가 두렵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요즘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만,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고 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적 혹은 젊을 때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나의 모습, 행동이 없었는지요? 우리 모두는 단점 많고 부

족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우리들, 때론 돌발 같고 때론 가시덤불 같으며 때론 태양 아래 아스팔트 같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당신 능력의 씨앗을 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돌발을 고르고 가시덤불을 쳐내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을 때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안에서 활동하시고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을 치유해 나가듯,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돌발 같은 나의 마음에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어린 영혼의 체험을 통해 용서와 이해의 폭을 또 키워나갑니다. 조금하게 서두르거나 반대로 나태하게 쉬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 한걸음씩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어느덧 백 배, 예순 배, 서른 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겸손하게 손을 내밀고, 온전히 당신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길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시편 121,2) **필문**

## 생태적 회개와 친교의 성사를 통해

# 우리 농촌을 되살립시다!

오늘 농민 주일을 맞이하여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하느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농촌을 살리고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더 큰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기후변화, 식량과 자원의 부족, 경제 불안의 지속 등 지구적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들로 오늘날 인류와 지구생태계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조화롭게 빚어주신 자연세계를 우리 인간의 무책임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남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이윤추적만을 위한 세계화의 진행으로 많은 나라에서 농촌의 빈곤, 토지분배의 불균형, 영세농업의 가속화, 공동체적인 가족농의 붕괴, 토양의 피폐 등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전면적인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업 구조조정정책으로 농촌공동체는 해체되고, 더 이상 지을 농사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1994년 춘계 주교회의에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이듬해인 1995년 추계 주교회의에서는 매년 7월 셋째 주일을 '농민 주일'로 제정하여 한국천주교회 전체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교구별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생명농산물 직매장 운영과 연간 100여회 이상의 다양한 도농교류행사 등을 통해 하느님 창조질서 보전과 도·농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회개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밥상을 살리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충분한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없는 모든 가난한 이들의 삶도 함께 고려하여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는 물론 지역의 가난한 이들의 밥상까지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제 활동을 공유하는 협동과 연대의 지역운동, 공동체운동을 전개해 나가길 바랍니다.

2017년 7월 16일 제22회 농민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



## 희망의 길에서 만난 평화

바오로딸



강우일 지음 |  
300면 | 12,000원

가끔씩 아련하게 떠오르던 추억이 오늘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처럼 싱그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등학교 4학년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본당 신부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한 강론을 우리에게 연극하듯 재미있게 들려주셨다. 그때 얼굴이 까맣고 눈이 커다란 한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신부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아이의 말이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또렷이 박혀 있다. 성당은 잠시 쥐죽은 듯 조용했다가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신부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저는 한 시간 삼십분을 걸어서 친구들과 미사 참례를 하러 와요. 저보다 더 먼 공소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도 저희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모든 혜택은 읍내에 사는 친구들 차지구요. 가끔씩 놀림과 무시를 당하기도 했구요.” 뒤에 있던 어른 몇이서 헛기침을 하셨고 언짢아하는 말씀도 하셨다. 그런데 본당 신부님은 달랐다.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셨다. 그리고 그 후로 공소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와 식사 등이 제공되었고, 부활소풍은 공소방문으로 대체하셨을 뿐

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공소 아이들이 공소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셨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희망의 길을 걷다』를 읽으면서 어린 시절 한국말이 서툴렀던 파란 눈을 가진 본당 신부님이 떠올랐다. 이 책은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강우일 주교님의 발췌된 글을 통해서 만난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자들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기쁨을 살아내고자 뚜벅뚜벅 걸어가는 희망의 길은 평화로 이어졌다. 이 책은 강우일 주교가 하신 말씀과 실천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정황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어떤 정황에서 행해진 것인지도 기록되어 있어 도움이 되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희망을 두고,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굳건히 서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남읍시다.”

이 말씀은 저자인 주교가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초대하는 희망과 평화의 길이다.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서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복음의 기쁨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그 열매를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 더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더 닮고 싶어 하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살고 전하는 평화의 길, 희망의 길을 모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 **김민**

# 하느님께 드려야 할 사랑의 응답

## (십계명 1~3계명)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제시하는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앞 세 계명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라

십계명의 첫 계명은 오로지 하느님만을 세상 만물 위에 공경하고 섬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최고의 공경을 흠송(欽崇)이라 하는데 이 말은 오직 하느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성모님은 상경(上敬), 성인은 공경(恭敬)). 하느님께 대한 흠송은 주님이시며 주인이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모시는 것입니다. 흠송은 기도와 찬미, 희생과 봉헌 등을 표현하는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첫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심을 부정하는 무신론, 미신과 마법을 믿거나 길흉을 점치고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하느님을 시험하고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나 성전, 축성된 성체와 기물을 훼손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천주교 신자 가정에 성모상이나 성인성녀상과 같은 성상과 성화를 모신 것을 두고 일부 비신자와 개신교에서는 우상숭배라 공격하지만, 성모님이나 성인성녀들의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고 그것을 목상하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공경이지 우상숭배나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흠송이 아니기에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정성껏 부르고 그 이름을 존경할 것을 명하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써서 욕을 하거나 하느님의 이름을 빌어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저주, 또는 거짓 맹세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거짓 증언으로 내세우는 것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활동을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성호경은 우리를 온갖 유혹과 어려움에서 굳세게 해줍니다.

###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십계명의 셋째 계명은 그저 주일 미사에 참석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일요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됨을 일깨우는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고 하느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미사에 참례하며 거룩한 일에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하거나 남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삼가야 하며, 적당한 휴식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거나 가족들을 보살피는 일에 시간을 내도록 합니다. **▶**

## 교구장 동정



- 7.9(일) \_ 영남 가톨릭 교수회 파견미사 (한티피정의집)
- 7.13(목) \_ 교황청 시스티나성당 합창단 공연 관람 (주교좌 범어대성당)
- 7.15(토) \_ 한티 봉사자의 날 (한티피정의집)

## 총대리 동정



- 7.3(월)~15(토) \_ 서품 10년차 사제 연수 (동유럽)

## 교구 및 기관 행사

- 7. 17(월) \_ 시니어 평생대학 연합회 봉사자 연수 (10시, 교육원 다동 대강당)
- 7. 19(수) \_ 예비신학교 고3, 대학, 일반 하계 성소 피정 (21일까지, 한티피정의집)
- 7. 22(토) \_ 비다인의 날 (삼덕젊은이성당)

###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창세 1,10,12,18,21,25,31)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 중 '생태적 회개(217항)'와 관련하여 교구 생태환경 위원회에서는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하고 **하느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태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2017년 3월 1일(재의 수요일)** 부터 2018년 사순 시기까지 1년 동안 교구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b>생태와<br/>환경을 위한<br/>실천사항</b> | 1. 손수건 들고 다니기 (한 장의 기적)  |
|                                | 2. 개인 컵 들고 다니기 (한 잔의 기적) |
|                                | 3. 남은 자원 모으기 (오병이어의 기적)  |

**다 함께**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가뭄으로 힘든 농민들을 위해 물을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도 살고...

박성규 엘리지오



## 미 사 안 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7일(월) 10:30 범어성당	한티순교자현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7일(월) 11:00 순례자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7월 17일(월) 11:00 계산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7월 18일(화) 19:00 현일고등학교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20일(목) 10:00 평화성당

### 성소 | 피정

####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원하는 시간에

장소: 계산서원

문의: (010)3113-6219

hoe6219@hanmail.net

####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미사·안수)

일시: 7.19(수) 13:00~16:30

8.16(수) 13:00~16:30

장소: 삼덕성당

지도: 강요셉 신부 / 문의: 422-6691

#### 7월 한티 피정

그대 어디로 가는가: 7.29(토)~30(일)

지도: 흥경혜, 흥승란

예수마음기도(침묵): 7.31(월)

지도: 권민자 수녀, 여영환 신부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예술 전례 피정

기간: 8.13(일) 16:00~15(화) 13:30

장소: 성베네딕도왜관피정의집

참가비: 15만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신청: (054)971-0722

####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권민자 수녀)

3박 4일 피정: 7.23~26 / 8.24~27

8박 9일 피정: 8.9~17 / 9.19~27

청년 피정(35세 미만): 7.29~8.1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 제주 성이시들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7.25~27 / 7.30~8.1 / 8.4~7

8.10~12 / 9.2~4 / 9.6~8

문의: 성이시들피정의집,

(064)796-9181

### 교육 | 모집 | 기타

#### 작은형제회(OFM) 뿌르치운꼴라 행진

청년부: 7.28(금)~31(월)

중·고등부: 7.30(일)~8.2(수)

장소: 산청 성심원

문의: (010)4592-4560

(010)4808-3281

#### 말씀학교 영성강좌\_2코린(14주)

개강: 8.31(목) 10:30~13:00

장소: 대명성당(매주 미사있음)

과목: 2코린토서간 / 수강료 무료

강사: 양은철 신부(성바오로수도회)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010)9333-6260

####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기간: 6.12(월)~9.30(토)

대상: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문의: (031)8017-4239

http://cyberbible.casuwon.or.kr

#### P.C.E.(돌봄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기간: 9.4~11.27 매주 월 10:00~13:00

9.6~11.29 매주 수 10:00~13:00 / 40만원

8.31~12.15 매주 목 10:00~17:30 / 80만원

대상: 자신·가족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문의: 성바오로 CPE센터, (010)4143-5508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무시험 취득교육

주말반: 금 18:30~22:20

토, 일 13:30~21:50

대상: 19세 이상, 남녀 제한 없이 누구나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 소울스테이 여름 가족 캠프

기간: 8.11(금)~13(일) 2박 3일

장소: 평화계곡피정의집(소울스테이)

준비물: 텐트(야영 가능) / 회비: 9만원

향심기도 2박 3일 피정: 8.4(금)~6(일)

문의: (010)5332-7587

####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호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이 원 의 로 기**

혈압계 · 혈당계 · 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 · 주사기 · 보호대 · 뜰 · 부항기  
주열기 ·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안마기 · 실버카 · 산소치료기 · 핏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명동성당 앞  
임마누엘 결혼정보**

결혼정보 44년 전통

명동성당 정문 앞 한국 YWCA 504호

☎ 02)757-3343 이수산나

**HS 의성고속관광(주)**  
HEE SL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말기암 통증 및 증상 조절

재능 및 기타봉사자 상시 모집

☎ 사랑나루의원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동구시장 맞은편)  
24시간 상담 · 입원 (053)217-9500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대구, 경북 어디서나 포장이사 전문

**2484익스프레스**

환의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원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 행사 | 모임

###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7.17(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 교육 | 모집

### 모래놀이 치료사 기초교육

일시: 7.22(토) 9:30~19:30

장소: 성토마스성당 교육관

문의: 박카타리나 수녀, (010)5635-1775  
김자영, (010)8802-6839

###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뿌리 깊고 샘이 깊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전국 최대 규모 가톨릭계 대학교  
의예·간호 포함 의료보건 특성화대학  
기간: 9.11(월)~15(금)  
문의: 850-2580 / <http://ibsi.cu.ac.kr>

###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화) 바이올린, (목) 성가반주법  
문의: 가톨릭문화관, 476-6211

### 더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352차 ME주말: 7.28(금) 19:00~30(일)  
353차 ME주말: 8.4(금) 19:00~6(일)  
354차 ME주말: 8.18(금) 19:00~20(일)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 대구가톨릭학술원 8월 공개 특강

일시: 8.24(목) 17:0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2층 강당

주제: 독일의 시민교육

강사: 이옥분 명예교수(경북대)

문의: 대구가톨릭학술원, (010)3933-5875

###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단원(60세 이하)을 찾습니다.

연습: 첫째, 둘째, 넷째주 토 18:00

셋째주 일 17:00 / 장소: 계산문화관 5층

문의: (010)3817-1963 / (010)9095-0570

### 가톨릭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대상: 35세 미만 전공자

마감: 8.15(화)

문의: 안주환, (010)8581-5148

<http://www.catholicphil.org>

## 채용 | 안내

### 성안드레아성당 계약직 채용

시간: (화)~(일) 주 36시간 근무

업무: 본당청소, 시설관리

문의: 사무실, 742-0282

사무장, (010)8208-3850

### 요양보호사 채용

대구가톨릭치매센터에서 함께할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문의: 616-2141~2

### 대구시교육청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상담사 채용

자격: 관련학과 전공자

문의: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474-1984

<http://www.jesusclub.or.kr>(공지사항)

### 성요셉요양병원 입원 상담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말기암 전문요양  
주말농장 체험을 통한 가족단위 원예치료  
장효원 신부님의 매일미사와 함께 영성치료  
문의: 610-3645

###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방법: 전화 및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7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네오미피부과**  
Neome Skin Clinic  
원장/피부과 전문의 이준호 시메온  
소아, 난치 피부질환 클리닉  
명품레이저 보유  
월성CGV 건너편 T.053)656-0075  
NAVER 네오미피부과

5인의 분야별 전문의  
검진부터 맞춤 진료까지  
**속안심내과**  
지하철 1호선 각산역 2번 출구  
053)965-6633

**다비드제통외과**  
비수술적 척추,관절,신경,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영득 (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운입역에서 도보 10분

**노루페인트**  
페인트도매납품, 건축내외부도장공사, 예복시, 병수공사,  
컴퓨터조색, 전환경인대교(벤트, 듀릭스 수입패턴)  
☎ 583-7391, 010-3507-0744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258 (2호선 성서공단역~계명대역사이)  
노루페인트인크사 이영덕(말랑보) 이영덕(소피아)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아곡수(아네스) 010-5048-7739

**기백한의원**  
손발 저림, 허리, 어깨  
무릎, 두통, 어지럼증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리노한의원**  
[내용대사발기] RE-KNOW KOREAN MEDICINE CLINIC  
허리·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면역치료,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치료  
야간진료 : 화,목 9시  
원장/한의학 박사 김 의 근(리노)  
☎ 755-5575, 559-5255  
범어대성당 1층 상가 (범어역 2번 출구)

**윤영현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영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